

# 강진군, 초보 농사꾼 위한 농기계 교육 실시

### 귀농사관학교 교육생 대상 안전교육 및 텃밭 관리기 실습 본점·작천·도암·칠량 분점 등 농업기술센터 4개소 운영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에서 초보 농사꾼을 위한 농기계 안전 교육과 관리기 사용 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이 강사로 나서며 농업기계 안전 및 관리기 사용 등의 이론교육과 관리기를 활용한 로터리 작업, 골 만들기, 옥수수 및 감자 심기 등 텃밭 작물 심기 등을 실시했다.

교육생 조성대씨는 “눈으로만 보던 농기계를 직접 운행해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고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관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도 함께 알려주어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기 사용을 숙달했다”고 말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설치해 본점, 작천, 도암 그리고 칠량 분점까지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철인 4~6월까지의 토요일 근무를 실시해 농업인에게 적기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오는 29일까지 군민의 상·명예 군민 후보 찾습니다”…총 4개 부문

완도군이 제51회 ‘군민의 날’(22. 5. 31.)을 맞아 군민의 상 및 명예 군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군에서는 매년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군 명예를 선양한 단체 또는 개인을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 수상 및 명예 군민을 선정하고 있다. 군민의 상은 교육 및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향토방위 및 질서, 안보 부문 등 총 4개 부문에서 부문별 1인을 선정한다. 명예 군민은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경제, 과학 등 대내외적으로 군정 발전 및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선정 인원은 제한이 없다. 추천 기한은 4월 29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완도군청 총무과(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후 6월 중 군민의 상 시상 및 명예 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총무과 행정팀(061-550-5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패류 메카 조성사업 박차

### 5월까지 강진만 해역 57ha에 새꼬막 종패 460톤 살포

강진군은 새꼬막 양식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 8일부터 강진만 8개 해역 57ha에 새꼬막 종패 460톤 살포를 시작했다. 군은 새꼬막 주요 살포 시기인 4, 5월 두달간 인근 시·군에서 2cm크기의 새꼬막 종패 460톤을 5억 7,000만 원을 투자해 용산리, 신기리, 별정리 등 8개 해역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종패 살포는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에 하역한 후 마을 면허지 내에 일몰 5시간 전에 물때에 맞춰 3~4회로 나눠 작업을 되풀이해야 한다. 도암면 용산리 새꼬막 양식어가 김옥태(66세)씨는 “조류의 힘이 좋은 사리때를 피하고

조류의 힘이 약하고 완만한 조금때만 살포해야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종패가 자리를 잘 잡고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살포한 새꼬막 종패는 2년 후 4cm정도까지 자라며 살포 이후 이상기온, 고수온 및 큰 태풍만 피하면 뿌린 투자액의 2배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창복 해양산업과장은 “2년 이내에는 강진에서 키운 종패를 타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참꼬막 대량생산을 위한 중간종묘 육성사업에 3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패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땅끝순례문학관·백련재 문학의집 8호 소식지 발간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백련재 문학의집에서 다채로운 문학 정보를 담은 여덟번째 소식지를 발간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시, 소설, 아동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담겨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추모 20주기를 맞이한 해남 출신 대표 현대문인 박성룡 시인의 대표작·품위를 필두로 백련재 문학의 집에 입주하여 집필 활동했던 입주작가와 예비 작가들의 결과물로 꾸며졌다. △조금새기(김선태) △매고픈 다리 밑에서 흥탄(손병현) △고양이 천국, 꽃섬(안미란) △나는 누구인가·(송기원) △해남에는 땅끝순례문학관이 있다(이원화) 등 작가들이 백련재 문학의 집에 머물며 직접 창작한 작품을 실었다.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소식도 함께 담겨 있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 우드랜드 말레길서 즐기는 슬기로운 걷기

장흥군이 지역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말레길 새단장에 나섰다.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된 말레길 환경개선에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이용과 쾌적한 걷기 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뒀

하는 것으로 ‘가족간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말레길은 3,736m 길이의 나무데크로 조성됐는데, 이곳을 이용하면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불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말레길 환경개선 박차 남녀노소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 즐길 수 있어

다. 3.8km 구간의 데크길 가운데 훼손된 곳을 보수하고 오일스텐을 새로 칠하는 등 탐방로와 주변환경 개선을 집중 실시했다. 말레길은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여불산 정상까지 이어져 있다. 장흥지역의 방언인 ‘말레’는 ‘대청’을 뜻

장흥군 관계자는 “새단장한 말레길을 이용하면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코로나로 흐트러진 건강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해안가 유입 해조류 5톤 수거·처리

### 고군면 등과 함께 인력·장비 투입…신속한 수거

진도군이 최근 강풍으로 해안가에 밀려든 신비의 바닷길 등 회동 관광지 인근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고군면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인근 해상에서 미역 등의 해조류가 회동 관광지 앞 해안가로 유입되어 악취와 해충 발생 예방, 관광지 경관 보전을 위해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 해조류를 수거·처리했다. 바다환경지킴이 24명과 집게차 1대, 운반차를 투입·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해조류 5톤을 즉시 처리해 경관 개선을 완료했다. 진도군 고군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안가와 관광지 경관 보전을 위해 감시 예방 체계를 상시 구축, 신속하게 해안가로 밀려든 해조류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도 해안가



에 밀려든 해조류 등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 시설물 관리 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해안가 모니터링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중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